



[라이프]  
바로·임박·새벽  
유통가  
설선물 스퍼트  
니



Life

[바이오]  
메디톡스  
두바이에  
할랄공장 짓는다  
L2



# 서울시의회, 객관적 예산 편성·사회적 책무 강화 등 주문

## 서울시의회 요구사항 155건 접수 수요 등 과학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행정소송 증가에 대책 마련 요구 市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객관적인 예산 편성, 행정소송 증가 원인 분석,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주문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155건을 접수해 131건에 대한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 나머지 21건은 추진 중이고, 3건은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수요, 그간의 실적,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작년 9월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태용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정 기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특정 사업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이 사업 예산 편성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사업별 효과성,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유무, 유사중복 여

부, 집행실적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예산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행정수요 변화에 발맞춰 시의성이 부족한 사업,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 시민 체감형 재

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권익·민원 행정소송 증가는 서울시정에 대한 불만의 방증이라며 시에 전반적인 행정 기조를 검토하고 행정소송의 원인을 분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행정소송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9년 192건에서 2020년 271건, 2021년 291건으로 2년 새 51.6% 폭증했다.

시는 “행정소송의 경우 범규의 시행·고시 처분 등에 따라 유형별 사건이 해당 연도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제기된 행정소송 291건 가운데 59건이 코로나19 관련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2019년 192건에서 작년 232건으로 2년 만에 20% 넘게 증가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시부터 전문적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해 법원 판결 추세를 법규·제도에 적극 반영,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임평가 강화에 고졸생 취업비율 상승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이 제시됐으나 반영이 안 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작년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감점 폭을 기존 최저 -1.5~최대 3점에서 최저 -2~최대 3.5점으로 확대했다. 고졸생 취업비율은 지표 배점을 높여(0.25→0.5점) 관리 중이며, 기관별로 고졸생 취업자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전장연에 비공개 합동면담 제안

## 전장연 “타 단체 제외, 단독 면담 요구” 서울시 “다양한 단체 목소리 들어야”

서울시는 지하철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면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 시장은 19일 오후 장애인 단체에 비공개 합동 면담을 요청했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국비 1조3000억원)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

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포함돼 있다.

전장연은 타 장애인 단체가 없는 단독 면담을 요구했고, 시는 다른 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면담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탈시설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으며, 전체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단체와 함께하는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

리 예산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장연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재부 등의 소관이나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의견 전달에 적극 나서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한 교통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체 지하철역 337개 중 95%에 해당하는 319개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으며, 2024년까지 337개 전역사에 엘리베이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동권 개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와 함께 키워요”... 육아지원 본격화

## 오세훈표 ‘엄마야빠 행복 프로젝트’ 0세 전담반·돌봄비 등 2002억 투입

서울시는 올해 2002억원을 들여 ‘엄마야빠 행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엄마야빠 행복 프로젝트는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의 종합 계획으로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4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는 아이와 동반하는 외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서울형 키즈카페 100곳, 유아용변기와 기저귀교환대를 갖춘 ‘가족화장실’ 49개소를 서울시내 곳곳에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육아가 처음인 초보엄마야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선보인다. 3월에는 100개의 ‘0세 전담반’을 어린이집에 신설하고 이른 저녁(오후 6시)에 하원하는 아이들이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100곳에 조리인력을 지원한다.

8월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원을 제공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첫발을 댄다.

시는 기존 사업을 포함해 엄마야빠 행복 프로젝트에 2026년까지 14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용인시, 상습정체 도로 개선에 1964억 투입

## 처인구 중심으로 도로망 연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동서간 균형있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도로·교통 분야에 전년 대비 245억원이 증가한 1964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에 ▲국도 17호선 보개원삼로 1.9km 구간 확포장공사 80억원 ▲마성교차로에서 포곡IC까지 이어지는 중1-45호선 2.24km 구간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50억원 ▲국도 17호선

평창사거리~양지IC 구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국지도 82호선 화성시동탄~남사면 차리 6.8km 구간 개설, 국지도 84호선 동탄~이동읍 천리 6.4km 구간 개설 등 각각 467억원(12곳)과 222억원(11곳) 등 도로 개설·확장사업(75곳)에 1189억 원을 투입한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 개선이 시급한 처인구를 중심으로 지역 간 도로망을 연결하는 데 힘을 쏟아 시민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균형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임창교 기자 lckda@

# 성남시 100억 규모 취업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올해 미취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에 100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청년 취업 All-Pass’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어학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가공인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거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모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회 100만원 이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접수를 진행해 실비를 지원한다.

/경기=임창교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5 | 해질 / 17:40

1월 18일 (수)  
음력 : 12월 27일

수도권 날씨  
-4 ~ 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9/2, 동두천 -7/3, 가평 -9/2, 양평 -6/2, 용인 -2/2, 평택 -4/3, 수원 -2/2, 파주 -9/2, 인천 -4/1, 백령도 -4/1, 서울 -4/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첼시로 간 무드리크 전 구단, 300억원 전쟁구호 기부  
▲야스민 없어도 6승2패...현대건설, V-리그 최다승 정조준 /사진 뉴스스

▲SK와이브스 댄 양헬 산체스, 샌디에이고 마이너 계약  
▲프로축구 수원, 전북서 댄 ‘패스마스터’ 김보경 영입



▲빙속 박지우, 동계 유니버시아드 여자 3000m 은메달 /사진 뉴스스  
▲여자프로배구 시페퍼스, 훈련장·속소 광주 이전 추진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